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 물류센터 화재지역 주민 위해 45억원 지원 나선다..“지역사회 회복에 총력”

2026. 9. 20.

- 물류센터 인근 약 2만 8천명(약 1만 5천세대) 대상 생활지원금 및 피해회복지원금 지급
- 주민 지원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전개
-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지원, 관내 주민 우선 채용 및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까지

2026. 09. 20.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센터 인근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 45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말 화재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 무료 건강검진, 병원 비·약제비 지원, 긴급 구호물품 지급 등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추가 지원 방안이다. CFS는 물류센터 인근 주민 약 2만8천명에게 생활지원금 및 피해회복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화재로 인해 휴교조치가 내려졌던 학교와 대피소가 운영된 인근 학교에 대한 발전기금 지원,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전반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 물류센터 인근 지역 주민에 생활지원금 및 피해회복지원금 일괄 지원

CFS의 이번 지원방안은 지역사회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했다. CFS는 그동안 인천 서해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의 끝에 이번 일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손해사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CFS는 화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던 석남1동 지역과 신현동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세대당 1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물류센터에 매우 인접하여 대피소 체류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석남1동 일부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세대당 2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회복지원금은 화재로 인한 청소 등 주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다. 생활지원금 전체 지원대상 인원은 약 2만 8천명이며, 피해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세대 수는 약 1만 5천 세대로 추산된다.

CFS는 지원금이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서해구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CFS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서해구청과의 협이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원 대상 지역의 주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물류센터 인근 주민의 개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절차에 따라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번 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지원을 진행한다. CFS는 개별 피해 접수를 위한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를 예정대로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임시 대피소 운영 학교 발전기금부터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까지

CFS는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피해복구지원금 지급 외에도, 지역사회 전반의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전개한다. 먼저 물류센터 인근 4개 학교(신석·신현·신현북초등학교, 신현여자중학교)에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한다. 신석초는 화재 당시 휴교령이 내려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신현초와 신현북초, 신현여중은 지역 주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로 운영되기도 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도 집중 지원한다. 석남동과 가정동 독거노인시설·복지관·장애인시설 등에 물품 기부를 진행하고, 전문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화재진압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장 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나선다. 지역 안전을 지키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관내 소방서와 협의해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에 지급할 생활지원금 및 피해회복지원금,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는 45억원에 이른다.

서해구 관내에 양질의 일자리도 늘릴 방침이다. 서해구청과 협업해 관내 물류센터 근무를 희망하는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예정이다. 특히 자동화 설비와 기술에 관한 핵심 업무에 우선적으로 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CFS는 지난 7월 말 화재 발생 직후 다각적인 피해 지원에 힘써왔다. 인근 주민 대상 전문 의료진의 무료 건강검진과 약제비 및 병원비 지원, 병원 셔틀버스 운행, 청소비·세차비 지원, 전문 출장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대피소 현장에는 매트리스, 이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인근 학교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7월 말부터 현장 피해지원센터 및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CFS 관계자는 “인천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 지원 방안	
주요사항	상세 내용
인근 지역 주민 2만8천명 지원	· 생활지원금 주민 1인당 5만원, 세대당 피해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 피해 큰 일부 지역은 생활지원금 10만원·피해회복지원금 20만원
인근 피해학교 지원	· 화재 지역 인근 4개 학교 총 1억 5000만원 규모 학교발전기금 지원
사회공헌활동 전개	· 관내 독거노인시설·복지관·장애인시설 물품 기부 및 사회공헌활동
소방공무원 지원	·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부여 및 소방 현장 필요 물품 지원 · 관내 의용소방대 별도 지원
관내 일자리 창출	· 서해구 관내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자동화 설비, 기술 관련 핵심 업무)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